
 <b>국토교통부</b>	<h1>보 도 자 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<b>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</b> 
	배포일시	2017. 1. 12.(금)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	항공정책과	담당 자	• 과장 윤진환, 사무관 류나린, 주무관 송규상 • ☎ (044) 201-4204, 4185, 4186
보 도 일 시		2018년 1월 15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14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제2 여객터미널 수속보안검색 빨리진다..스마트 첨단기기 도입 셀프 탑승수속 43→30분·보안검색 시간 30% 단축

- 1월 18일(목) 개장하는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은 공항에 접목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스마트공항이 될 전망이다.
- 1월 18일부터는 제1 여객터미널은 아시아나항공, 저비용항공사 등 86개 항공사가 운항하게 되며, 제2 여객터미널은 대한항공, 델타항공, 에어프랑스항공, KLM네덜란드항공 4개 항공사가 운항하게 된다.
- 제2 여객터미널에서는 여객 당 셀프 체크인, 셀프 백드롭, 자동 출입국 심사 기기 수가 제1 여객터미널에 비해 대폭 증가하게 된다.

< 셀프 서비스 기기 도입 현황 T1-T2 비교 >

	셀프 체크인	셀프 백드롭	자동 출입국 심사
T1	92대 (100만 명 당 1.7대)	14대 (100만 명 당 0.26대)	72대 (100만 명 당 1.33대)
T2	62대 (100만 명 당 3.44대)	34대 (100만 명 당 1.89대)	52대 (100만 명 당 2.89대)
비교	<b>2배</b> (여객수 대비)	<b>7.3배</b> (여객수 대비)	<b>2.2배</b> (여객수 대비)

【제2 여객터미널 자동 출입국 심사대】

- 셀프 서비스 기기 도입 증가로 탑승수속이 빨라지고 제1 여객터미널에서 43분 걸리던 탑승수속이 제2 여객터미널에서는 30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.



- 여객들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보안검색 역시 첨단화된 보안검색 기기를 도입하여 더 편리해면서도 검색의 정확성은 강화 될 것이다.
- 제1 여객터미널에서 사용되는 문형검색대의 경우, 금속물질만 탐지 가능했으나 제2 여객터미널에 도입되는 원형검색대의 경우 비금속물질 역시 탐지가 가능하고,
  - 보안요원의 추가 탐색이 필요한 부분이 모니터 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빠르게 보안검색을 마칠 수 있다.

【 문형검색대 】



【 원형검색대 】



- 보안검색 벨트의 경우 제1 여객터미널은 단선이였으나 제2 여객터미널은 병렬로 구성되어 별도 정밀검색이 필요한 수하물을 자동으로 분리하고, 사용이 끝난 바구니를 자동으로 원래 위치로 이동시키는 기능이 도입되어 빠른 검색이 가능(검색시간 30% 단축)하다.

【 단선 보안검색벨트 】



【 병렬보안검색 벨트 】



□ 공항의 각종 시설위치 안내 서비스 역시 강화될 예정이다.

【 실내 길안내 】

- 인천공항 어플리케이션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공항을 비추면 공항 시설 안내 및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증강현실(AR) 기반으로 공항 길 안내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



- 여객의 티켓을 스캔하면 자동으로 가장 빠른 동선을 알려주는 안내 전광판 서비스도 제공되어 효율적으로 이동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.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제2 여객터미널에 지속적으로 첨단 기술이 도입되어 공항 이용이 편리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.

- 1월 18일부터 대한항공, 델타항공, 에어프랑스항공, KLM 네덜란드 항공 4개 항공사는 제2 여객터미널로 이전하므로, 공항 이용객은 공항을 이용하기 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류나린 사무관(☎ 044-201-418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